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을 감 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각 심령 속에 생명을 보냄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전파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3월 14일 (토) 제 152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미주한인교회 4,135, 주별 1위 CA 2위-뉴욕, 3위-뉴저지...순위·교회수 전년도와 거의 동일 본지 '2015년도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발행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35개로 집계돼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2013년 말 4,150개).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는 1,295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4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캘리포니아 1,219교회(1,214), 2위 뉴욕 420교회(전년 410), 3위 뉴저지 260교회(236), 4위 버지니아 217교회(202), 5위 워싱턴 202교회(196)로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괄호 안은 전년도 교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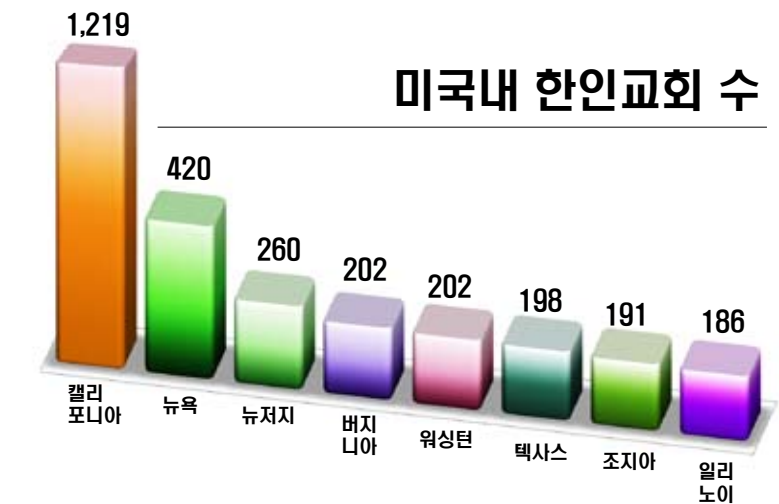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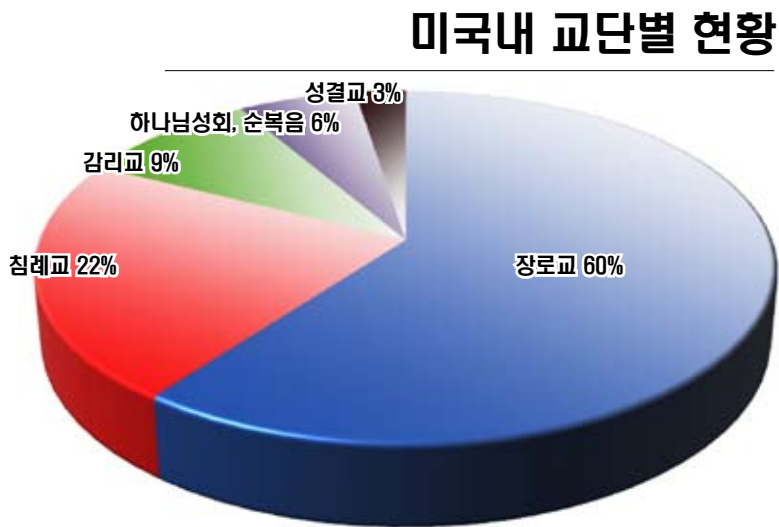
교회 수는 캘리포니아 5교회, 뉴욕 10교회, 뉴저지 24교회가 각각 증가해 한인들이 집중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더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6위는 텍사스로 198교회(177), 7위는 조지아로 191교회(177)로 나타났다.

8위 일리노이 186교회(171), 9위는 메릴랜드 150 교회(130), 10위 펜실베이니아 114교회(120)로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나 일리노이 주나 펜실베이니아 주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77개국에 총 1,295교회가 리스트업 됐다. 전년도에 비해 4교회가 감소됐다.



해외교회 1위는 예년도 동일하게 캐나다로 394교회(동일), 2위는 일본 199교회(204), 3위 호주 173교회(172), 4위 독일 98교회(동일), 5위 아르헨티나 56교회(5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타타냈으며 교회수는 동일하거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면 '소통'과 '왜곡'의 경계사이...SNS 폭발적 성장세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조진모 목사

16면 "미국내 한인교회 과제 담당에 큰 책임감"

16면 성공에서 무너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 온라인서 벌어지는 영적전쟁은 실제 상황!

### 뉴스위크, 청소년 유혹 이슬람극단주의 온라인 소개와 대책 보도

"너는 강하고 현명하니 올바른 결정을 내리리라 믿는다.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보고 싶어한다. 우리 모두 네 걱정을 많이 한다. 네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것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게는 밝은 미래가 있었다. 그러나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영국 십대 소녀 아미라 어베이스(15)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은 부모가 그녀에게 보낸 호소였다. 그녀는 두 친구 카디자 솔타나(16), 샤미마 베검(15)과 함께 지난 2월 17일 영국 개트워발 터키행 비행편에 몸을 실었다. 시리아로 건너가 '지하드 신부(jihadi brides)'로서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는 시도로 경찰은 판단한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3명의 소녀 모두 런던의 베스널 그린 아카데미 학생이었다. 이들에게 아크사 마무드(20)가 트위터를 통해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글래스고에서 시리아로 날아가 IS에 합류했던 또 다른 여성이다. 마무드의 가족은 그녀의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영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IS 대책에 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이들의 IS 가담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못한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마무드의 가족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성토했다.

이미 알려진 성전주의자가 트위터 같은 주요 플랫폼을 통해 십대 3명을 급진주의자로 전향시켰다는 사실은 서방 정보당국의 전략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말해준다.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선전 선동의 막대한 규모에 정부 당국이 치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Western Intelligence Services Overwhelmed by Jihadist Propaganda).

영국 내무부는 그런 프로그래밍 다가가 "급진주의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시인한다. 소셜미디어 업체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해 이 같은 이른바 '침실 급진화(bedroom radicalization)'에 맞서야 한다고 내무부는 강조했다. 덧붙여 온라인에 나도는 불법적인 테러리스트 자료의 삭제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공개했다.

내무부는 온라인 극단주의와의 싸움에 관한 정부 지출통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대테러 인터넷 조사팀(CTIRU)이 삭제한 온라인 극단주의 자료가 2013년 12월 이후에만 5만6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0-2013년에

삭제된 1만9000건에서 30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S 대책연합의 다른 구성원들도 온라인 대테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테러리스트 선전물을 퍼뜨리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의 폐쇄에 180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장관이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IT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지난해 트위터에 194건의 정보 요청을 했다. 그 전 해의 82건보다 112건 늘어난 수치다. 페이스북에는 2013년 하반기 1906건의 데이터를 요청한 반면 2014년 상반기 요청건수는 2110건이었다.

(3면으로 계속)

## 사 고

# '2015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5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 지역별 배부장소

####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렘루아 기독교회점(NY) (718)762-0011  
할렘루아 기독교회점(NJ) (201)373-0029

####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회점 (323)766-8793

#### ▶ 기타지역

커투넷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노스캐롤라이나 벽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북가주한인기독교회비 방송국 (408)433-0001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957-1021

####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시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메마르지 않는 사순절!



은희곤 목사 (잠사목교회)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못생겼고, 무엇을 가르쳐도 늘 쉽게 잊어버리는 아이였는데도 원장은 특별히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모여 스승인 원장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게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질 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뛰어오는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저 바보는 원장님이 무얼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하며 비웃었습니다. 원장은 왜 새를 죽이지 못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스스한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이야기 한편은 우리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영업과장으로 계셨는데 항상 이리저리 국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항상 출장가면 늘 고민이 생깁니다.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교회, 목사, 성도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출장간 곳의 쾌락적 밤 문화에 자주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같이 간 동료들도 그런 자기 마음을 아는지 자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퀴즈를 냈는데 지금도 마음에 떠나질 않습니다. '여리고 골짜기에는 누구, 누구 몇 명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가락으로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세기 시작합니다. '강도, 강도 만만자,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주막 주인. 모두 6명이네요'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아니야, 1분이 더 계셔!' 아이들은 다시 셉니다. '아니 6명 맞는데', 이렇게 2-3번 반복하다 지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누구나, 가르쳐 달라?'고 조르자 그제야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 아이들은 맞다, 맞다 박수를 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저와 반 친구들의 그 모습은 제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그뎐' 박수치며 그러나 '지금'은 '두렵게!'

이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출장 갔을 때의 시험과 유혹을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셔!"라는 신앙적 마음으로 이겨 나가셨다는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기도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디서든지"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늘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신앙, 기도원 신앙,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생활신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도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마5:16).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해 아래 감출 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3면으로 계속)

'소통' 과 '왜곡' 의 경계 사이...SNS 폭발적 성장세

CT, "교회내 소셜 네트워크 사용" 전문가 3명 의견 제시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SNS)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2/3 정도가 SNS를 이용해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비즈니스까지 그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만 해도 현재 이용자가 9억 정도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주가가 연일 상승가를 이루고 있다.

SNS는 손쉽게 인맥을 확대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 수집 그리고 빠른 속도로 순간에 퍼지는 특성 때문에

여론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 정보 노출, 정보 신뢰성 하락 그리고 가상 라인 인맥에 집착하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외톨이인 현상들을 증가시킨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데이에는 SNS에 정통하거나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을 통해,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SNS 사용을 물었다(How to Think about Social Networking in Churches: What do we do with virtual fellowship?).

다.

첫째, 교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적이란 공동체와 사역, 복음화, 영적 성장 등을 가리킨다. 소셜 미디어는 이 각 요소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교제에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즉, 교제의 폭을 교회 너머로 확장해 전 세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도구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눅5:4)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돕는다.

교회의 교제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바깥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선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뿔뿔이 흩어진 부족처럼 지역 개교회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고전12:12).

셋째, 소셜 미디어는 시간적 제약 없이 뛰어넘는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가정 등 특정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만났다. 하지만

현실을 왜곡시킨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점도 많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즐기려면 신중하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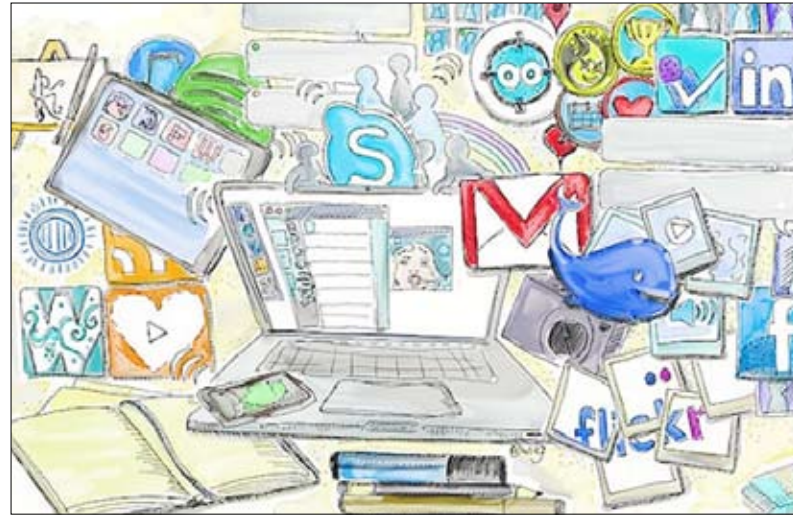
잘만 사용하면 소셜 네트워크는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의 삶을 열어 보이는 창이 되어, 교회 안의 교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웃 돕기에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일부로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오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소셜 미디어는 단거리적이고 기술적인 해답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실질적 교제 없이도 친밀해지거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다보면 온라인에서도 한 공간에서 실제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때문에 몸소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고유한 관

com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교제를 깊게 만들어준다



SNS-장점: 인맥 확대, 지식 정보 수집, 효과적 여론 형성  
단점: 개인정보 노출, 정보 신뢰성 하락, 실제 외톨이 현상 증가

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전략으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장치에 의존하면 할수록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위험이 커진다.

공동체의 문제는 서로가 한 공간에서 식탁교제를 하며 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순간, 서로의 어깨를 감싼 그 편안한 팔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즉각적 위험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서 형성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사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직관을 무디게 만들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

특히 날이 갈수록 소셜 네트워크가 비디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실에서 이 질문은 보다 중요해진다. 비디오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

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사회성을 환기시키지만, 동시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마치 사회성이 충족되는 것 같이 몰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접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기술적 확장이 인간성을 파괴할 때, "이제 그만"이라고 외쳐야 할 원칙적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소셜 네트워크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나 역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교회 화합을 돕는다는 거짓 약속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매튜 리 앤더슨(Matthew Lee Anderson), EartMereOrthodoxy.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로서,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공동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며 활기 있게 움직이는 네트워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용기를 내어 두려워 말고 현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이 도구를 포용해야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의 설교를 두고 한 주 내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넷째,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가 오프라인에서 공동체를 촉발시킬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가 아닌 보완이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도구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Founded in 1986'. Below the banner are details for 2015 Spring semester degree programs, including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in various field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and Theology.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in campus in Wentzville, MO and a Washington DC site is provided at the bottom.



# 서방정보당국 전략에 큰 구멍

## 뉴스위크, 청소년 유혹 이슬람극단주의 온라인 소개와 대책 보도

(1면에서 계속)

2월 하순 백악관에서 있는 급진주의 대책 대표자 회의에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참석했다. 그녀는 IT 및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불법 테러리스트 관련 자료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기업이 급진주의자들의 자사 플랫폼 사용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맞서야 한다”고 메이 내무장관이 대표자 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의 플랫폼이 급진주의자를 위해서나 테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현혹되기 쉬운 영국의 눈앞에서 급진주의의 자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영국 보안당국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 식의 이같은 전략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영국 당국은 이미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급진주의 콘텐츠의 홍수 때문이다. 급진주의 대책 싱크탱크인 전략적대안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에린 솔트먼 박사의 진단이다. “분명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콘텐츠가 엄청났다. 그 콘텐츠를 제거해야 할 문제라면 본다면 고양이가 쥐를 쫓는 식의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고 그녀가 경고했다. “하지만 그것을 반론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아니다”어 전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IS에 의해 유명해진 잔인한 참수 동영상 같은 자료들은 몇 번이든



IS가 보내는 영상물에 등장하는 북미식 억양의 IS 대변인

## “이슬람극단주의 메시지 영향 상쇄시킬 반박스토리 올리는 블로거들 활약 중요”

때로는 수천 번이라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고 솔트먼 박사는 지적한다. 따라서 영국 내무부가 자랑하는 7만6000건의 삭제 건수도 여전히 대단치 않은 수준이다. 수천 건의 콘텐츠 삭제와 불과 몇 건의 똑같은 자료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온라인에 나도는 급진주의 자료의 양에 비하면 그 수치는 실제로 보잘것없다. 여전히 강물에 돌 하나 던져 넣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런 자료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 방대한 양의 급진주의 콘텐츠를 영국 정부당국이 모두 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온라인 해적판 거래를 막기 위한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부질없는 몸짓에 비교할 수 있을 듯하다. 영국의 정치 싱크탱크 데모스 산하 소셜미디어 분석 연구소 제이미 바렛트 소장의 관측이다.

“세계 영화업계의 자금력을 모두 동원해도 해적판 비디오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 1800만 달러로 어떻게 극단주의 단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주 테러리스트 선전선동 퇴치’ 이니셔티브에 대한 바렛트 소장의 평가다. “영화사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자금 규모는 애당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복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개인 IP 주소를 은폐하기가 갈수록 훨씬 더 쉬워진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데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야지 자료를 못 보도록 막는 일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자료가 사람들을 급진화하지 안 할지, 또는 제거할 수 있을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극단주의 콘텐츠의 제거는 ‘소극적인 조치(negative measure)’라고 급진화 전문가들은 말한다. 온라인 극단주의 문제를 다른 플랫폼으로 밀어내거나 극단주의자들의 집요함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급진화 대책 싱크탱크 킬리암 재단의 하라스 라피크 대표는 감시 대상인 한 특정 성전주의자의 예를 든다. 80번째 트위터 계정을 이용 중인 한 성전주의자는 계정을 새로 만든 뒤 3시

간 이내에 팔로어 5000명을 끌어 모은다.

그렇다면 테러 콘텐츠(참수 동영상, 끔찍한 이미지, 호소력 있는 모집 광고)의 쓰나미가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극단주의 메시지의 영향을 상쇄하는 ‘반대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라피크 대표는 말한다.

“소극적 조치 자체는 효과가 없다. 반대 스토리가 더 필요하다. 테러 단체 모집책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맞서 그들의 일부 논리를 반박하는 개별적인 운동가보다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드리는 경배를 받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열과 성의를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옹호해왔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리리오”(롬10:14)라는 말씀에 따라, 가능한 한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옮겨 적고 번역해왔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 그 메시지를 퍼뜨리려고 힘쓴다. 그리스도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교회 안에 연합의 장을 만들 수 있다.

한 마디로, 다른 모든 미디어가 그렇듯 소셜 미디어에도 장단점이 있다.

- 더그 그루투스(Doug Groothuis), 기독교변론론 테버신 학교 교수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다.

# 소망 칼럼

## 소망이 끊어져도 희망을 놓지 말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서울의 모 의사는 “만약 당신이 암 환자가 된다면 단 1%의 생존율 앞에서 희망을 주는 의사를 만나라”고 당부하고, 또 “단 1%의 희망조차 없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고독과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아무리 실패하고 삶이 비참하더라도

희망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

사도 바울도 한때 너무 큰 환난을 당하여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였고(고후1:8), 그때에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였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진맥진하여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질 때도 있다. 어떤 이는 불치의 병에 걸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9)고 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실패와 환난, 좌절과 절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는 죽음에 직면한 절망의 때에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부(富)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청년의 때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 자신이 별 볼일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늙어가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학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토록 당당하고 힘 있는 그가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처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전15:8-9). 자신이 대단히 힘 있고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는 지극히 빈약하고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일반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엡3:8) 바울이 자신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요,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행악자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을 하였다(딤후1:15).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전12:11).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구원받고 승리를 하게 된다.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 주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돈으로 권력으로 과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님은 고치신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 현실 왜곡, 깊은 교제...장단점 있다

(2면에서 계속)

이상적인 것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으로 연결돼 마침내 서로가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요1:12) 경우다. 나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주에 사는 친구 여럿을 최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관계가 실현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그리스도인 사이에 한정됐던 교제의 문을 열어 외부 사람을 기독교 공동체로 초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젊은 세속주의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 블로거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한 무신론자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종교 논쟁에 참여했다가, 신의 존재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한 젊은 엄마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오랫동안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기도 했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는 위험성도 잠재돼 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하거나, 자기도취를 조장할 수도 있으며, 한 사람을 몇 문장으로 단정 지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일단 위험을 깨닫고 나면 예방과 극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소셜 미디어는 실보다 득이 많다. 그리스도인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교회 내의 교제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시키고 건설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브랜든 포크트(Brandon Vogt) - SNS 관련 서적들(The Church and New Media: Blogging Converts, Bishops Who Tweet)을 집필했으며, ThinVeil.net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 장단점이 있다

대다수 미국인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어찌보면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흡수하고 발전시킨다. 마셜 맥루언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몽유병 상태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과 ‘소금’(마 5:13-16)이라 칭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수많은 기술의 장단점과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각 교회에서 이뤄지는 교제와 복음화에 있어 소셜 미디어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나? 우리 교회에서 페이스북이 긍정적 역할을 하나? 우리 목사님은 트위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혹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성경적 모델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소셜 미디어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사람과 단체 사이의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높여준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덕분에 나는 길 건너의 이웃뿐만 아니라 인도에 사는 친구 소식도 금방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먼 곳까지 글과 사진을 보내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셜 미디어는 “그곳에 존재” 혹은 “함께 있다”는 실제 존재 없이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실제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세례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소셜 미디어는 우리 의식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어수선하게 집어 넣어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대상에 깊이 몰두하는 능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멀티태스킹(다중작업)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정신은 흐트러지고 산만해져, 그 어느 것에도 온전히 몰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 교제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다. 소셜 미디어는 이를 모방하고 가장할 뿐이다. 요한이 쓴 짧은 서한인 요한이서는 이렇게 맺는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요1:12). 하나님 역시 수세기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요1:14)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은 미완의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열방이 하나님을 유일하고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 시론

(2면에서 계속)

나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고 시치미 떼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3:20). 이제 우리는 빛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변화된 인생을 살아 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3:21).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찾아내는 절기입니다. 죄를 꼬집어내는 절기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마음 위어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예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죄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절기

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닿은 곳마다 치유와 소생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예수 십자가 목상과 영성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터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사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신앙인의 정체성

구원 받은 성도는 잘 믿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교제하는 어느 장로님은 열심 있는 신앙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 이유인즉 열심 있다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강변한다.

그렇다면 열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많은 시간과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보상심리가 클 수 있음을 뜻하게 된다. 성도는 구원 받은 존재이냐 그 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질료가 남아있다고 칼뱅은 갈파한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열심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 중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문제 메이커가 되기 쉽다. 아마도 서울의 문제가 많은 대형 교회의 치열한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열심을 냈던 분들일 것이다.  
기사화 되는 대형교회의 투쟁은 결코 끝 간 데를 모를 정도다. 수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결사적으로 투쟁을 지속하는 것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 투쟁을 지속할 때 영적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앞장서고 있는 당사자들일 것이다. 투쟁이 진리 문제, 또는 진리가 뒤흔드는 경우라면 투쟁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이권이나 명예 문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까 싶다.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은 개운치 않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머잖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신앙인들이다.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현세에서 밝히지 않는다 해도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된다.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좀 인내하고 견디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조금씩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태리에 서는 종류가 수없이 많은 소위 굵은 복권이 인기가 높다. 당장 몇 십 초 안에 현장에서 당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인생은 그 앞에 반드시 서야하고 그 곳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설령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리 탄식할 일은 아니지 않나? 원통한 일이란 무엇일까? 대체로 속임을 당하고 건물이나 돈을 강탈당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

나 강탈당한 다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건물이나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한다. 세상의 정복자들이 일시적으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자기화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기원전 67년 당시 로마공화정의 일년 세입에 버금가는 재산을 소유했고 2008년 포브스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75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 BC115-53)가 있다. 당시 수도 로마의 땅 대부분이 그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로마를 다닐 수 없을 정도였고 시이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땅은 수많은 소유주만 바뀌었을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빼앗겼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관리권을 넘겨주었을 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 치열하게 원

통해하고 애걸복걸할 일도 아니지 않다. 우리는 그저 관리하다가 그대로 돌려드리고 가야할 숙명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음이고, 생명이요, 상급의 조건들이다. 그것들을 생명 있을 때 많이 쌓아놓아야 한다. 그것은 외적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 크다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주님께로부터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욱 매혹찬 책망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항상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언젠가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점을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을 까?

### 푸 / 른 / 초 / 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별 힘든 노력 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실과를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신앙의 복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

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으며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가져 준 것이 아니라 세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놓

포도원을 다 지어 놓고 ‘때가 이르매’ 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료를 낼 수 있을만한 충분한 때가 됐다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그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작료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매를 달라고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

보았을 때 그들은 심히 때렸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소작료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쳐 구원하였고, 교회에 인도하였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었으니, 애들이 이제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마음에 결심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돌아와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서 그 하나님과 수립된 관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신앙의 열매 (누가복음 20장 9-12절)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당신의 종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대화와 성회로 모이고 심일조와 헌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 깊은 곳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하여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기를 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열매 맺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March 16-20 (3월 16일-20일)**  
PM 8800 Reprogramming the Church for Global Impact  
Dr. Bruce Dipple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Arlene꽃집 할머니가 주정부 판사에게 보낸 감동스런 편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오바마 정부를 통해 미국 안에서 합법화 되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Non-Discrimination 법안”들이 주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크리스천신앙에 대한 고난과 차별”이 이 미국 땅 안에서 겨우 6-7년 만에 심각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오바마 정부를 통해 미국 안에서 합법화 되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Non-Discrimination 법안”들이 주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크리스천신앙에 대한 고난과 차별”이 이 미국 땅 안에서 겨우 6-7년 만에 심각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락을 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거의 2년간 제게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게 하는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과 능력, 그리고 지난 30년이 넘도록 좋아서 한 일이 불법으로 간주될 줄은 한 번도 상상도 해본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맞서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것이지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소송으로 인해 나의 사업이나 집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즐기지도 않고요. 하지만 나에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고 바로 2주전에 그런 황당

만약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존

위싱턴 주의 헌법은 우리에게 “종교적 양심에 의한 모든 감정의

## 동성애자 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기독교인 꽃집 할머니 “차별금지법” 위반 30년된 꽃집 등 전 재산 날릴 위기

을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위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 중 한분인 Arlene's Flower 꽃집의 주인인 바로넬 스테츨만 (Barronelle Stutzma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년전 워싱턴 법원에서 마침 동성결혼을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과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합법화를 한때였습니다. 그 당시 Arlene꽃집 주인인 70세 된 바로넬 스테츨만 할머니는 거의 10년 정도 손님으로 그리고 친구처럼 섬기며 꽃을 팔았던 게이동성애자인 Rob의 “결혼 꽃 주문”에 할머니의 신앙관을 지키기 위해 꽃 주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주 정부와 Rob의 소송을 받아 계속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가, 한달 전에 드디어 법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 소송에 맞서겠다고 한 꽃집 할머니에게 워싱턴 주 법정과 소송을 건 팀들에서 Arlene꽃집에 다 음과 같은 settlement를 보내왔습니다. “벌금을 2,001달러로 줄여 줄 테니까 앞으로 결혼 꽃을 만들지 말 것과 맞소송을 취소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법정의 알박한 편지에 바로넬 할머니가 너무 멋진 편지로 답장한 것을 번역해 여러분께 나누며, 바로넬 할머니의 용기와 믿음에 응원해주시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차이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준다면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주는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2012년 이래, 워싱턴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행동화하는 것에 자유로웠으나, 저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내 신념을 행동화하는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해결책 제안을 읽어 보니, 당신도 역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모든 갈등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할머니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결과였습니다. 법정은 할머니가 신앙을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꽃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이라는 이유로 할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오던 꽃집과 집, 은행에 모아둔 모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만큼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동성애자 남성(Rob)은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

친애하는 미스터 Bob Ferguson 씨,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에게

모든 문제에서 자유”에 대해 약속하지요. 저는 이 소중한 자유를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은 30년에 무한한 가치를 판 한사람(유다)”와 같이, 그 배신자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재고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Rob을 신실하게 손님으로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Rob이 정말 잘되길 바랍니다. 저는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의 많은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왔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들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신앙을 공격하고 이 소송을 계속해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나의 일과, 일상생활 하는 것과 가정에 대한 협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법을 확실하게 따라가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나의 가정과 사업과 다른 재산을 대항하는 이 소송을 그만두고, 정식 항소를 통해서 법적 소송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의 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당신이 나의 제안을 재고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Sincerely,  
Barronelle Stutzman으로부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는 면이 나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세례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랜스에서 김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이 30세가 되어야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임직식을 할 때 먼저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온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신약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30세가 되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아오자 세례요한은 매우 놀란 얼굴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하며 세례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까? 마3:15절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처럼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저는 3가지로 해석을 해봅니다.

1)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었지만 그분이 오신 주목적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3년 후에는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에 앞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의미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성경주석학자인 헨드릭슨이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의 자리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2)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비판적인 눈과 교만한 태도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야이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자진해서 받으심으로 그의 세례사역에 대한 전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인다는 표를 보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도 일선에서 뛰는 목회자를 늘 협력하며 사랑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큰 힘을 얻습니다.

3)장차 하나님의 일꾼 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는 (PCUSA 교단) 창립 45년의 전통과 더불어 1세와 2세교육의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공동체의 회복,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헌신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 이상의목회경험(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이중언어가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본인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3부 (목회자 2명/평신도 1명)
6. 최근 6개월내 설교 3회분 (영어1회포함-CD/DVD)

제출마감일: 2015년 4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청빙위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Email: office@kup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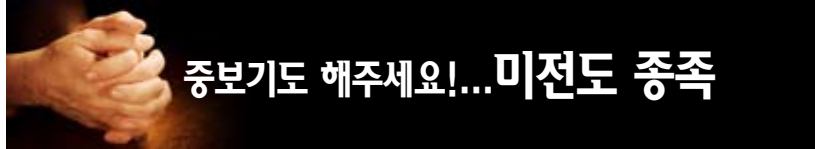
기타: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Tel: 773-283-3377 www.kupc.org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라즈반시(RAJBANSI)



라즈반 시족은 작은 산악왕국 네팔에 거주하는 110여개의 인종그룹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남으로는 인도와 북으로는 티베트 사이에 걸쳐 있다.

라즈반시족은 "거친" 사람들로 묘사돼왔는데, 보통 중간키에 검은 피부와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언어는 라즈반시어로서 네팔의 공식 언어인 서벵갈 지역의 벵갈리어와 유사하다.

드라비드족 후손으로부터 온 민족이라고 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 라즈반시족은 농부들로 몇몇 가족을 기르고는 있지만 가족들을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 제품들은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파는 품목으로 사용된다.

를 주저하면서 노동의 다른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집들은 나무, 대나무, 짚, 진흙으로 만들어진다. 10채에서 100채의 가족들이 군집해 한 마을을 이룬다. 부계사회이며 대부분의 가정은 장남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기본 가족단위로 구성된다.

라즈반시족의 옷은 매우 단순하다. 남자들은 도티스와 랑가우티스라 불리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며 여자들은 패타니스를 입는다(천 조각이 그들의 몸을 감싸서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몸을 가려준다).

신앙

라즈반시족은 수백만의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힌두교인이다. 모든 마을에는 여신 칼리(창조의 화신)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신당이 있다. 축제는 "파우니(Pawni)"라고 불리운다. 비록 그들이 힌두교의 다사리와 티하르 축제를 즐기지만 그 축제들을 인도의 힌두교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정부는 복음의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극심한 규제에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혹하게 처벌 받고 있다. 극소수의 라즈반시 기독교인들은 억압적인 불평등과 싸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화 '예수'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또한 기독교 라디오방송도 없으며 이 민족 가운데에서 일하는 선교단체도 전혀 없다.

소수의 라즈반시족 신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탐안과 성경, 기독교방송과 네팔지역 선교사들의 부족으로 라즈반시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들의 고립 역시 외부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앨라배마주 대법, 동성결혼에 제동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3일 휘하 판사들에게 동성애 커플의 결혼허가서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법관 전원이 공화당 소속인 주 대법원은 이날 결혼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이뤄진다고 규정한 앨라배마 주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의무를 미국 헌법이 바꿀 수 없다며 두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연방 판사들이 행한 수많은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앨라배마 주 모우빌 카운티의 캘리 그라네이드 연방지법 판사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직후 보수적인 로이 무어 주 대법원장은 휘하 주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동성결혼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2개 보수단체가 동성결혼을 중지시키기 위해 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욕시, 이슬람교 양대명절 공립학교 휴교

이슬람교의 양대 명절이 올해부터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의 휴교일로 지정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를 휴교일로 추가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학사일정을 발표한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 정책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는 더블라지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드 알 피트르'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단식(라마단)을 무사히 마친 것을 신께 감사하며 서로 축하하는 명절이다. 희생제로 불리는 '이드 알 아드하'

는 성지순례가 끝나고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열리는 축제다.

오는 9월 '이드 알 아드하'로 첫 휴교가 되고, 내년 8월 여름방학 중 '이드 알 피트르'를 위한 '여름학교' 휴교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 시의 무슬림은 60만-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 공립학교 학생의 10%가 무슬림이고, 무슬림 아동의 95%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뉴욕 시의회는 2009년 두 명절에 휴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학생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인식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뉴욕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보스니아와 몬테네그로, 이집트와 시리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까지 합세해 이슬람교의 양대 명절을 휴교일로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30년 후 미국인 절반 이상 유색인종"

2020년까지 미국 어린이 인구의 절반은 비(非)백인 계가 되고 2044년까지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유색인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4일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4년도 조사자료를 인용해 2044년 유색인종이 미국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되며, 2060년 그 점유율이 56.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히스패닉(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중남미국가 출신) 인구는 현재 17.4%에서 2060년 28.6%로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백인 인구 비율은 현재 62.2%에서 2060년 43.6%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인 7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비해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2차대전 후 출산한 1946-1964년생 인구로 약 2억6천만 명에 달함)가 2029년 65세를 맞은 다음 해에는 5명 중 1명꼴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외국 출생 인구는 현재 13%에서 2030년 1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영웅' 미국서도 기억하고 높이 평가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을 살리고 숨진 최혜정 단원과 교사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의 희생정신이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높은 평가까지 받았다.



'포 체플린스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은 8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네이비아드에서 '골드메달 시상식'을 열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끝내 죽음을 당한 두 사람에게 최고상을 수여했다. 이 재단은 1943년 독일에 피격돼 침몰한 미군 함에서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한 성직자 4명을 기리려고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설립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숨진 두 사람을 대신해 어머니들이 참석해 상을 받았다. 재단 측은 "최 교사는 승객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마지막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승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승객이 탈출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는데도 승객들을 탈출구로 밀어 승객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메달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 재단의 루이스 카발리에 회장은 두 사람의 구조 활동이 성직자 4명의 희생정신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들의 희생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사의 어머니 송명순씨와 박 승무원의 어머니 이시윤씨는 수상 소감을 밝히는 중에도 딸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들은 함께 읽은 소감문에서 "딸들이 남긴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최 교사와 박 승무원이 받은 '골드메달'은 이 재단이 주는 최고상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만이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이 재단으로부터 최고상인 골드메달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들의 수상에는 지난해 '봉사상' 수상자인 필라델피아 거주 한국 교민의 추천이 계기가 됐다. 펜실베이

니아 주 한인미용재료협회 오윤근(61) 회장과 문영환(63) 고문은 이들의 희생정신에 감동해 3번째 높은 상인 '인명구조상'에 이들을 추천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1개월여에 걸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추천된 상보다 높은 단계의 골드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인물들...

빈센트 반 고흐의 최고 걸작의 하나로 꼽히는 '밤의 카페테라스' 속 등장인물들은 예수와 12제자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인터넷 언론인 허핑턴포스트는 7일 미술 연구자인 제어드 박스터가 이 그림 속에서 흰 옷차림에 긴 머리를 한 사람은 예수를, 검은 옷이나 모자를 쓰고 테이블에 앉거나 주변에서 있는 열두 명은 12 제자를 상징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또한 카페에서 걸어 나가는 한 명은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라고 주장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면, 고흐는 은밀한 형태로 자신의 작품 속에 '최후의 만찬'을 그려 넣었다는 얘기다. 1888년 작인 이 작품은 고흐가 프랑스 남부에서 생활할 때 그린 것으로, 아를의 포럼광장에 있는 카페의 저녁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박스터는 고흐가 즐겨 사용했던 노란색을 이 작품에서는 천국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연결 지었다. 손님들을 카페의 구석에서 바라보는 2명이 노란색으로 묘사돼 있을 뿐 아니라, 카페를 밝히는 노란 불빛의 전등은 예수의 '후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카페의 창틀이 희미하게나마 십자가 형태인 점도 언급했다. 이런 '종교적 암시'는 고흐의 성장 배경과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고흐의 아버지는 네덜란드개혁신교회의 목사였고, 고흐의 숙부는 저명한 신학자로 고흐가 목회자의 꿈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실제 고흐는 '밤의 카페테라스'를 그릴 무렵,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종교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전했다.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위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5. 최소 2년 이상 사역이 가능하신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비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님수일(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중부위싱턴 한인장로 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2015년 오렌지카운티 지역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게 있는가?

제 55기 C.W.M. 전도훈련 세미나



"세상의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도 전도지를 가방에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뉴욕장로교회 김옥희 권사)

전도가 몸에 배어 내 생활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일시: 3월 16(월), 17(화), 18(수) 저녁 7:20 ~ 9:40
장소: 갈보리 선교교회(심상은 목사 시무)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대상: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모든 분
수강료: 40불(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포함), 4명 단체 등록 수강료 50% 할인
연락처: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주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후원 : 갈보리 선교교회

C.W.M.(Christ Witness Mission)은 198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입니다. 각 나라말로 번역된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C. W. M.(Christ Witness Mission)
11840 Paramount Bl., Downey, CA 90241
Tel: (562) 869-6160 / 714) 371-6406
Fax: (562) 862-2645





#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교회 -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 (1)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성경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혹시 세속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주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접하게 되지만, 신앙과 상관없는 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 그리고 에센과의 관점을 연구하였는데, 3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친 후 도시로 돌아온 후에 바리새파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로마에 파견을 받아 네로황제 앞에 서게 되었다.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총독으로 지낸 벨릭스에 의해 투옥된 제사장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벨릭스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체포되었을 때에 심문했던 인물이다(행23:24-24:27).

요세푸스는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가적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전쟁에 임하는 것이 지니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주후 66년부터 로마군대에 의해 포위당했다. 요세푸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을 총동원하여 결국 로마총독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혁명정부를 세운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막강한 전투력을 앞세워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하였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지만 절대 역부족이었다. 110만이 넘는 유대인이 생명을 잃었고 10만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가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글로 남겼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주후 67년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다가 포로신세가 되었다. 동료 40명과 피신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곁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요세푸스와 다른 한 사람이 남겨져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베스파시아

는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의 말은 배척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국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 결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지도자의 도움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다. 요세푸스는 현명한 역사가였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눈

### 역사가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평생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다. 그의 종교적 신념은 그의 역사관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모든 과정, 그리고 끝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역사관은 그가 93

로 기록된 그의 첫 작품은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의 직접 목격한 사건에 국한시키지 않고, 유대인의 저항과 로마군대의 공격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삼았다. 그는 로마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냉정한 태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서술하였다.

요세푸스는 93년경에 '자서전'을 저술하였다. 제목과 달리 그의 삶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자서전 성격이라기보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적군이었던 로마의 편을 들면서 살아온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다. 또한 96년경에는 '아피온을 반박함'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유대교가 헬라사상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앙과 상관없는 자들 글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 발견할 수 있어 철저한 유대인...로마인 입장에서 냉정한 태도로 예루살렘 멸망 서술

### 성경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세푸스는 역사가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의 역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저술한 4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세속 역사가로서 유대인과 로마사관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그가 의도한 바는 없지만 그의 글에는 우리와 친숙한 성경의 주된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요세푸스는 세속 역사가의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물론 세례요한과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준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질문: 그렇다면 나는 '요세푸스'라는 1세기 세속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글의 내용과 가치를 알고 있는가?

### 1) 교회 역사를 보면...

#### 요세푸스(30-100?)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유대인이다. 그가 태어난 주후 37년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서 통치를 마감한 해이기도 하다. 매우 훌륭한 가문 출신답게 어려서부터 남다른 지적활동을 하였다. 한 예로, 16살에 바리새인과 사두



##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진짜 이유는?

사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자 도망갔다(삼상13:6-7). 사울 왕은 빨리 전열을 정비하여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부득이하여'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삼상13:12). 그런데 알맞게도 그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무엘에게 있는 것 아닌가? 사무엘이 약속을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아닌가? 또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야 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그는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제사드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다.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게 되어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행위였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제사를 경홀히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정말 그럴까? 사무엘은 자기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사무엘이 누구인가? 그는 예언자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다. 사무엘이 레위지파였는지(대상6:26-27), 아니면 에브라임지파(삼상1:1)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레위지파라도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계열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고향자손이었다(대상6:26-27, 34-35). 그런데 그는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에서 제사를 드렸다(삼상7:9).

다윗은 어떤가? 다윗도 사울처럼 왕이다.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법제가 돌아왔을 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예뻐를 입고 제사를 드렸다(삼하6:13-17). 사울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또 다윗은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진설병

을 먹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런 일도 없었을까?

사울이나 다윗시대에는 아직 성전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성전이 세워지면서 레위지의 제사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며 성전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지만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드렸으며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기도문 같은 사사도 제사를 드렸다(삿6:25-28).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삼상13:13).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가서 내게 제물을 바치거라"하셨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거

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삼상28:17-18).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발각되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노라고 변명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런 선고를 받는다.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15:23).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 이 땅 고쳐 주소서

##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대뉴욕지구 연합기도대회

**일시:** 2015년 3월 18일(수)-20일(금) 매일 밤 8:00  
**장소:** 뉴욕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 [www.promiseny.com](http://www.promiseny.co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미기총대표회장



**정인수 목사**  
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이성철 목사**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아들란타: 2014년 10월 29일(수)-31일(금) 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남가주: 2014년 11월 11일(목) Verizon Wireless 야외공연장 2015년 1월 22일(목)-24일(토)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달라스: 2015년 2월 18일(수)-20일(금)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뉴욕: 2015년 3월 18일(수)-20일(금) 뉴욕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워싱턴 DC: 2015년 4월 22일(수)-24일(금) 열린문장로교회 (김용훈 목사)  
 ▶시카고: 2015년 5월 13일(수)-15일(금) Lakeview 안락교회 (강민수 목사)  
 ▶시애틀: 2015년 6월 24일(수)-26일(금)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공동대회장**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이재덕 목사**  
교회협의회 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목사회 회장

**주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후원:** 뉴욕전도협의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참가문의: 교협 (646)270-9037, 목사회 (917)558-7435,  
 뉴욕프라미스교회(718)321-7800, JAMA(310)995-3936





# 창조과학 칼럼 (226)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다 그의 손에 (35) 근친결혼

근친결혼이란 정의는 각 문화권마다 다르고 문화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과학적인 부분과 성경적이고 동시에 과학적인 부분에서만 근친결혼을 다루려고 한다. 과학적인 면에서 근친결혼이란 가까운 혈육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혈육으로서 부모관계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은 형제 그리고 삼촌, 사촌, 오촌, 6촌, 8촌 등의 순서로 가까운 혈육이다. 근친결혼은 왜 안되는가? 태어날 자손들 중에 유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람과 동물들은 두 벌(2n)의 유전정보(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한 벌(1n)은 아버지에게서 정자를 통하여 받은 것이고 다른 한 벌(1n)은 어머니에게서 난자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난자(1n)와 정자(1n)가 한 개의 세포로 합해지는 과정을 수정이라 하는데 이 때 비로소 각 개인

의 유전자들 중에 하나만 정상이라면(T, t의 경우) 정상 유전자가 정상적인 효소를 만들어내게 되므로 멜라닌이 생성되어 백색증이 생기지 않는다. 두 개의 유전자 모두 비정상이라면(t, t의 경

우) 정상적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백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부모 두 명 중에 한 사람이(T, t)인 경우 근친결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T, T x T, t=(T, T), (T, t), (T, T), (T, t) 이런 비율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므로 결국은 두 가지(T, T)와 (T, t)의 유전자 형태만 생겨날 것이다. 이 세대의 자녀들 중에는 어느 자녀도 백색증 환자가 되지 않는다. 모두 다 적어도 한 개의 건강한 T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T, t)인 아들과 (T, t)인 딸이 결혼하게 되면, (T, t) x (T, t)=(T, T), (T, t), (t, T), (t, t)가 되어 멜라닌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t, t)가 나타나 확률인 무려 25%나 된다. 문제가 없던 가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T, t)의 유전자 조

전자에나 우연히 발생하게 되므로 혈족관계가 가까운 사람보다는 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한 것이다. 이런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근친결혼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유전정보가 거의 완전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면으로는 근친결혼을 막을 이유가 없다. 성경의 근친결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인류의 시작이 완벽하였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유전정보가 완벽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의 유전정보도 거의 완벽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녀들이 서로 근친결혼을 했어도 유전적인 질병들이 발생할 염려가 없었다. 아담의 자녀만이 아니라 3세대 4세대 그리고 계속해서 몇 세대 동안은 근친결혼의 학적인 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아가 아담의 10세손이고 당시 환경이 무척 좋았으므로 노아홍수 직후 함, 셈, 야

## 창조시 완전한 유전자로 근친결혼 했지만 모세시대(2500년) 후 금지 인류 10만년이라면 유전자 돌연변이로 멸종했거나 각종 유전병 극심

의 유전정보(2n)가 완성 된다. 각각의 유전정보(1n) 속에는 동일한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세포 속에는 각 유전자가 2개씩 들어있다. 한 유전자는 정자, 다른 한 유전자는 난자에 들어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경우는 약 22,000가지의 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는 셈이다.



벳의 자녀들은 2촌 혹은 4촌간에 결혼을 했어도 의학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근친결혼을 장려했고 야곱도 사촌과 결혼했지만 문제 있는 자녀들은 없었다.

성경은 창조 후 약 2500년이 흐른 모세 시대에 와서야 근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근친결혼을 장려하던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셨을까? 질서의 문제만 아니라 돌연변이 때문에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인류의 역사가 진화론이 말하듯이 10만년이나 그 이상 오래되었다면 인류는 아마 유전자 돌연변이로 멸종하였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각종 유전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전병들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는 왜 생겨나는가? 물질세계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는 물질서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라 유전정보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사건 이후부터 계속 인류에게 돌연변이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돌연변이 현상은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을 생산하지 못하는 백색증(albinism)이란 유전병이 있다. 멜라닌 합성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과정을 책임지는 효소(단백질)에 대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최종 산물인 멜라닌이 생성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멜라닌 합성의 첫 단계를 책임지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tyrosinase)의 기능이 없어도 백색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사람의 경우를 통해 근친결혼의 위험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상적인 타이로시나아제를 가진 경우 T, 비정상적인 경우를 t로 표시하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인 경우 각 사람은 두 개의 타이로시나아제 유전자(T, T)를 갖고 있다. 만약 두 개

우) 정상적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백색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부모 두 명 중에 한 사람이(T, t)인 경우 근친결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T, T x T, t=(T, T), (T, t), (T, T), (T, t) 이런 비율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므로 결국은 두 가지(T, T)와 (T, t)의 유전자 형태만 생겨날 것이다. 이 세대의 자녀들 중에는 어느 자녀도 백색증 환자가 되지 않는다. 모두 다 적어도 한 개의 건강한 T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T, t)인 아들과 (T, t)인 딸이 결혼하게 되면, (T, t) x (T, t)=(T, T), (T, t), (t, T), (t, t)가 되어 멜라닌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t, t)가 나타나 확률인 무려 25%나 된다. 문제가 없던 가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T, t)의 유전자 조

합을 가진 사람이 다른 혈족과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 유전자(T,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 t)의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녀는 태어날 수 없다. 비록 본인이 (t, t)의 유전자 조합을 가졌을지라도 다른 혈족인 배우자가 (T, T) 조합을 가졌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한 개의 정상적인 T를 갖게 되어 백색증을 가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유전정보는 이미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또 부모가 정상이었어도 유전정보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돌연변이가 아무 유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행복자 모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신33: 29).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의도하신바 하나님을 닮은 만물의 관리인으로 환원하시려는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 타락한 성품에서 스스로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철 든 사람이 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활용해 빚어 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짚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며 전심을 사로잡고 있던 생존에의 두려움에서 풀려나오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혼신으로 돌보는 사명자로 만드십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왕자교육으로 최고의 지도자훈련을 받은 것이 40년입니다.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자기 민족을 편다가 살인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달아난 모세가 출몰산으로 광야로 도망 나와 남의 집에 얹혀 무명의 양치기로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인지하게 된 겸비한 사람 되는 훈련 40년을 지냅니다. 완전히 내놓을 아무 것도 없이 자존감이 바닥이 된 그 상태에 양치기 지팡이 하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명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상태였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도 빠지고 빠지가 등 떠밀려 강박한 바로 앞에서 서서 감히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입니다. 10년의 재앙가운데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애급의 우상을 쳐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급의 굳은 의지와 이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끌어내고 지팡이를 들고 시작된 출애급의 대장정 광야시여 40년입니다. 모세는 미리 양치기하며 광야에서 낮아지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는 훈련을 한 발 먼저 받고 출애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목자 훈련을 받으며 찌든 노예근성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자유인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전락하여 살았으니 물질에 치심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연연하는 하급 인간이 된 노예근성이 출애급하여 몸은 바로에게서 자유로워졌지만 죽을 맛에 고생길이나 마음은 여전히 애급의 우상 숭배적 인생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 있어버리고 힘든 고생만이 크게 다가가 불된 쓴 마음은 가슴에 뿌리를 내려 늘 분노로 가득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죄악과 배반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물이 갈라져 홍해를 건너던 기쁨은 잠시이고 눈앞에 보이는 힘든 노역, 힘든 광야 생활만이 보여 종주막대며 죽어려 달려드는 이스라엘을 위해 울며불며 얼굴을 땅에 바고 엎드려 화나 저들을 이끌고 가는 광야교회의 모세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을듯한 뜨내기 텐트 생활만이 크게 보여서 죽을상들이나 모세의 눈에는 애급의 10재앙이 이스라엘은 피해간 것, 홍해가 열려 모든 백성들이 건넌 기적적인 출애급, 종합 영양식 만나를 내려 그 많은 입을 먹여 살리신 것, 생수를 주신 것, 쓴 물이 단물되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힘든 광야보다도 힘들다고 난리치는, 눈꼽만치도 도움이 안되는 백성들을, 이를 부추기는 불순종하는 무리들과 씨름하는 괴로운 순간들... 안팎으로 적입니다. 도저히 인간 모세 혼자서는 해낼 꿈조차 꿀 수 없는 매일이 상상을 불허하는 살얼음판입니다. 모든 것에 눈과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었습니다. 그저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대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총성만 여호수아 갈렙을 대를 이를 지도자 세우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심계명을 주신 것, 가나안에 들어가 주신 땅을 정복토록 모든 원망하는 1세대는 데려가시고 순종하는 2세대 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능력의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방패이시며 전사되시어 조국음의 나날을 넘겨 살아남을 수 있던 것,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육 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된 기적에서 기적의 연속인 광야가운데 넘치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통감하고 넘치게 감사합니다.

(13면으로 계속)

#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사



2015년 1월	4월	7월	10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명교회(이재우목사)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4일 ~ 28일 불세상 센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촌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0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21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마라톤 불세상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경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 강의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5월 1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일 ~ 2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월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김리교회(최현구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 마가교회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 성황 300여명 참석자들 유가족과 아픔 나눠

“저희 시간은 4월16일에 멈춰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 행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마가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6일 오후 7시 성황리에 열렸다.

마가교회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한 후 세월호 유가족인 홍영미 씨(재유이 어머니)와 박혜영 씨(윤민이 어머니)가 참사당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홍영미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실패는 사형당해도 마땅한 선장이 36년형 받은 게 전부다. 많은 언론들이 참사현장 보도를 오보함으로 인해 구조에 참여러온 자들을 돌려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영 씨는 “세월호 지점다. 그만큼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왜 지겨운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하고 이일에 대



마가교회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시간에 유가족 홍영미 씨가 이야기하고 있다

해 누가 책임졌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만큼 수 없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만둘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박 씨는 또한 “그동안 국정조사를 했지만 전혀 밝혀지는 것이 없다. 현재 세월호에 대한 것은 유가족들이 하고 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에 대

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부모들은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영미 씨는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세월호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하던 그곳에 비상벨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만 눌렀어도 학생들은 전부 나왔을 것”이라 말했다. 홍 씨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가만히 있으라’다.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수장됐다. 그러나 부모들은 가만히 있으면 속이 터진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며 이곳 미국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홍영미 씨는 “우리나라 지도자분들 많이 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세월호 가족과 상처받은 국민들을 안아 달라”고 부탁했다.

홍영미 씨와 박혜영 씨는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 상담실을 갖추지 못한 신앙공동체를 위하여 (1)



김철직 목사

- 두뇌교육사.
- 현 한국 뇌과학연구소 두뇌개발교육원 미주본사 대표
- Brain E Science Institute 대표.
- 전 KAPC총회 총무
- 전 월드비전코리아데스크 서부지부장

들어가는 글

30살을 갓 넘긴 톱(가명)은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년이다. 그는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제대군인이다. 제대할지도 언제는 때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남긴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한 밤중에 영내로 날아드는 총알과 포격에 맞대항하여 정신없이 대응사격을 하였다. 다음 날 아침, 공격받은 적군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그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총격과 포격으로 난장판이 된 캠프 밖의 현장은 고작해야 10살 전후의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순결한 영혼은 그 날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방황에 빠져들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으며 직장을 얻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지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이 빈번해지며 가정생활도 순탄하지 못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근자에 각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물들었다고 한숨을 쉰다. 그런데 말이다. 마리화나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살펴보았는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찾는데 그것이 마약이어서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당국에서는 할 수 없이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얼마 전에 필자는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는 폴을 찾아 심방을 갔었다. 그는 월남전 참전군인으로 타임지에도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 명예로운 베테랑이다. 필자를 맞는 그는 애초부터 산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바하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급기야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필자의 어깨를 기도하는 도중에 툭툭 치더니 “너희 korean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나? 주기도문 하나면 족하지! 너희들은 다시 배워야 해! 내가 이 병이 나오면 교회에 나가서 너희를 다시 교육시켜주마!”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그는 ADHD 주의력결핍에 과잉행동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은 필자의 의아한 질문에 빠져들고 있다. 필자도 한국에서 7년 신학공부를 마치고 미주에서 5년 넘게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였다. 그 많은 세월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왜 고민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뿜어 들어보지 못했던 걸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말이다.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런데 인간의 아픔과 방황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

필자는 앞으로 정신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neurofeedback 훈련에 대해서 글을 올리려 한다. 이 훈련은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여 두뇌의 현 상태를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 맞게 뇌를 훈련하여 그 증상을 개선시키는 뇌파운동의 체계이다. 정신질환을 관념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프로이드적인 상담이론과 달리 정신질환을 뇌의 생리적인 기능 상실을 그 원인으로 규정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거한 뇌 기능 개선 프로그램이 뉴로피드백 훈련이다. 이 훈련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연락처: (213)505-2134



제84회 KPCA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퀸즈성인대학이 개강예배를 드리고 교수 소개 시간을 갖고 있다.

## 신임 노회장에 임종혁 목사 선출 KPCA 서노회 제84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KPCA 노회장 김신 목사)는 제84회 정기노회를 5일 주일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고 신임 노회장에 임종혁 목사를 선출했다.

노회장 김신 목사의 인도로 시작 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지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주일세운교회 중창단이 찬양했다. 이어 김신 목사가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한일’(딤후 3:3-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성규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강령장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회의를 통해 임종혁 목사(영원한기쁨교회)가 노회장에, 이종애 목사(상수리교회)가 부노회장에 선출됐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목사안수식을 갖고 최영일, 류재근, 박정숙, 이경정씨가 목사로 안수 받았다. 이날 노회는 김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제8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임원으로 선출된 명단이다. △노회장 임종혁 목사(영원한기쁨교회) △부노회장 이종애 목사(상수리교회) △장로부노회장 박영석 장로 △서서기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부서서기 김동원 목사(헬리우호순장로교회) △회록서기 장요한 목사(선한이웃교회) △회록부서서기 김용국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회계 김신호 장로(남가주명성교회) △부회계 이선규 장로(갈보리암교회).

〈박준호 기자〉

## 퀸즈성인대학 2015 봄학기 개강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담임 이양미 전도사)이 10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첫 수업에 들어갔다.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성인대학 이번 학기 학사일정은 첫 시간 예배와 성경공부(담임 김재형), 건강체조(담임 강주일)가 다 같이 진행된다. 그 이후 생활영어(1, 담임 유현), 스마트폰(담임 나일권), 수지침(담임 안현준) 시간을 선택하며, 이어서 생활영어(2), 컴퓨터, 기초생활 중국어(담임 장이)를 선택하게 된다. 이외에 미술교실(담임 박영재)과 뜨개교실(담임 김은숙)은 항상 오픈돼 있다.

또 이외에 4월 21일에는 영화감상(담임 신성근), 4월 28일 음악(담

당 윤원상), 5월 19일 요리(담임 황혜옥) 등이 예정돼 있으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까지 소셜 및 서류(담임 김한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새 학기 학사일정과 교수 소개, 각 과목 소개 및 등록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첫 수업을 받았다.

한편 개강예배는 국군장 장로 사회로 기도 하경와 장로, 말씀 김재형 목사, 합주 김기호 장로, 광고 이양미 전도사, 축도 김재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형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3절을 본문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벨연교회</b>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미):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d.org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3)536-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역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Fax: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한/영)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pc.org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pkpc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동부교계 기사판



## KAPC 동남부노회 새 노회장에 김승기 목사

### 제69회기 노회 “아름답고 화목한 노회로 성장하도록”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고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2015년 목사 학력 및 고시가 5월 11일-13일(뉴욕), 15일-18일(브라질)에서 열린다. 응시 자격은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 졸업 혹은 2015년 6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로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를 통과해야 한다. 응시서류는 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소속 노회장 추천서, 소속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이력서, 명함판 사진과 고시로 150달러를 내야 한다. 서류마감은 3월 31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에서 하게 된다. 고시기간 동안 숙소는 미리 예약해야 한다.

▲문의: (718)309-3376 이길호 부장, (443)520-5242 김영기 서기

#### 퀸즈장로교회 뉴욕퍼스펙티브스 훈련생 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뉴욕퍼스펙티브스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4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월 19일 4시부터 7시 20일-24일 오후 7시- 10시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차 등록마감은 3월 18일(수). 등록비는 250달러(본 교회 교인은 150달러를 지원한다). 교재비는 50달러다.

▲문의: (718)886-4040

#### 한인교회 사모 수련회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장길 목사)가 주최하는 한인교회 사모 수련회가 5월 17일(주) 저녁부터 19일(화) 오전까지 버지니아에 있는 에즈라 수양관에서 열린다. 주강사는 강선우 사모(두레교회 김진홍 원로목사 부인)과 김에스터(수도원 부원장, 김창길 원로목사 부인). 회비는 없으며 선착순 20명.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과 뉴저지교협(회장 이병준 목사)가 후원한다.

▲문의: (201)675-1790 황미혜 사모, (551)265-1187 이상화 사모

#### 제 4차 종말론 핵심 세미나

제 4차 종말론 핵심 세미나가 “중동집중”-이슬람적 그리스도론의 성경적 근거를 주제로 3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진욱 목사이며 참가대상은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명자.

▲문의: (908)265-2766

####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취임예배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오태환 목사의 회장 취임예배가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 은총장로교회(담임 오태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46)354-8989

#### 청소년센터 농구대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농구대회가 4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홀리카우 플레이그라운드(197 St & 64 Ave, Fresh Meadows)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6학년-12학년. 참가비는 팀당 150달러(두번째 팀은 100달러). 신청마감은 4월 4일(토)까지, 마감일이 지나면 25달러를 더 내야한다.

▲문의: (718)279-1313



뉴저지부부미션합창단 첫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제 69회기 노회에서 새 노회장에 김승기 목사(엠펜시제일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이외에 △부노회장에 김상기 목사(은혜반석교회) △장로부노회장에 오적목 장로(롬한인장로교회) △사기에 이병성 목사(햇빛장로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화평장로교회(담임 김용환 목사)에서 개최된 본 정기노회는 목사회원 및 사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회의에 앞서 노회장 최중현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윤도기 목사(서기)가 기도하고 최중현 목사가 ‘더 나은 삶’(행 2:29)이란 제목으로 “구약에 보편 왕도 아니다. 다윗의 묘실에 묻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선을 행하는 자 ‘여호아다’이며, 또 여호와와의 전에 수종 드는 자인 그 유명한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여호와와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인 우리 목회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



신구임원 교체. 김승기 새 노회장이 성경책과 사회봉을 전달받고 있다.

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곧 이어 최진목 목사(담임 갈보리장로교회)의 집례로 가진 성찬식에서는 고근영 목사가 기도하고 최진목 목사가 “두 아들을 위한 잔치”(눅 15: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가진 회무처리에서는 회장의 개회선언 후 회원들이 새 회기 임원선거를 실시해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외에 △부서기에 고근영 목사(헤브론교회 담임) △회록서기에 이영웅 목사(삼일교회 담임) △부회록서기에 김준회 목사(내쉬빌장로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그리고 △회계에 고인권 장로 △부회계에 유환무 장로로 모든 새 임원이 확정되므로 신구임원 교체식을 가졌다.

최중현 전 노회장으로부터 성경

책과 사회봉을 전해 받은 김승기 새 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카고의 중부노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3년

## “아름다운 가정, 찬양의 하모니로”

### 뉴저지부부미션합창단 첫 모임 12가정 참석

뉴저지부부미션합창단(NJCMC, 대표 유현웅) 첫 모임이 지난 3월 7일 오후 7시에 뉴저지 참된교회(담임 박순진 목사)에서 열렸다.

12가정 총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모임에서는 식사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찬단 예배와 말씀, 부부합창단의 창단목적과 비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합창연습이 진행됐다.

이날 고여태 이상목사가 축복의 말씀, 부부합창단 지도 목사인 신철웅 목사가 미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심상진 장로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동 합창단을 이끌게 되는 유현웅 지휘자는 “앞으로 뉴저지 부부 합창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분과 찬양의 하모니로 귀한 사역을 이뤄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뉴저지부부미션합창단의 정기연습 첫모임은 3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뉴저지 참된교회에서 열리며 이후 격주 화요일로 모이게 된다.

다행히 부부들은 유현웅 지휘자(201-887-2323)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NJCMC)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에서 라흥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여 전에 동남부노회로 이명 왔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노회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앞으로 우리 동남부노회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가며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임원들과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무처리 중엔 새하늘교회(담임 양진영 목사) 김경민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양진영 목사의 기도, 신임노회장의 설교, 노회장이 목사후보생에 대한 서약, 안수기도 후 공포하고 송영성 공로목사의 권면과 손창일 목사의 격려사, 최중현 직전노회장의 축사 후 이날 안수 받은 김경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날 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진행됐으며, 12건의 헌의문서건이 처리됐고, 새로 가입한 노회원들과 준회원의 소개 및 인사가 있었다.

(기사제공: KAPC 동남부노회)

## 메시아...다니엘 · 계시록으로 설명

###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라흥재 목사(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가 지난 9일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라 목사는 자신의 저서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오전에는 서론과 다니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진행됐다.

라흥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며 “성경은 전체를 보고 전해야 하며 성경의 연결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라 목사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며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의 오심인데 다니엘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계획이 인간의 시

공 안으로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라고 말했다.

또 라 목사는 “신약의 결론은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 하에 시간 안으로 오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완성된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계시록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 계시록은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며 “계시록의 목적은 2-3장에 있는 7가지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나흥재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참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의 싸움과 영과 영의 싸움으로 가는 길과 적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박문근 목사 인도로 뉴욕퀸즈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기도 조의호 목사, 특송 김수경 목사, 성경봉독(계1:3) 박문근 목사, 축도 김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라흥재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8권 시리즈로 출간돼 있으며, 이외에 성경도표, 다니엘계시록 상하, 공과책, DVD 등이 있다. 또 영어(구약, 신약, 70이레)와 중국어(하나님의 구원계획 4권)이 출간돼 있다.

도서는 본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yahc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권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8:30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ngtch.com	<b>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8:30 주일 7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ngsemame.org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YM에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occhurch.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금요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롱아일랜드서경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dus.org Tel: (516)333-757, 목장,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b>에벤에셀선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주일 6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b>예사당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b>좋은목자교회</b>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OT모임: 오전 9:30(화) Tel: (516)584-4088, www.joynmckch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주일 6부예배: 오후 8: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qcnyc.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AÍ-1A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전 7:40 주일 5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8: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주일 4부예배: 오후 6:0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주일 6부예배: 오후 6:00 Tel: (595)211-574-985 E-mail: hanrk@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www.hwainc.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17개 교회 참여...한 마음으로 준비

## KUMC 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선교찬양제 성황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회장 최미란 권사)가 주최한 '2015 선교찬양제'가 8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미란 회장은 "선교찬양제가 여선교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특히 여선교회가 바라던 하나 됨이 각 교회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남선교회 회원들과 목사님들, 칼케임원들 등 다양하게 모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영광 올려드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샌디에고 KUMC 난타팀의 오프닝 공연과 최미란 회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찬양제는 박옥란 부회장의 사회로 교회를 가득 메운 청중들과 함께 여선교회 목적문을 낭독했으며, 남가주여선교회 연합회의 2014년도 활동사항에 대한 동영상



KUMC 2015 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선교찬양제가 월서UMC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벨리UMC 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

이 소개된 후 목회자부부 찬양팀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이정숙 선교부장과 장호경 한인코디네이터의 사회로 찬양제가 열려 밴나이스교회 등 16개 교회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지난 6주간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수준 높은 찬양제로 꾸며졌다.

또한 목회자와 여선교회연합회의

연합난타팀이 난타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박준호 기자)



군사랑선교회가 주관한 예배에서 인도 선교상황 보고를 인도 바탈라교회 아룬다스 목사가 하고 있다

## 군사랑선교회 인도 선교 상황 보고

### 바탈라교회 아룬다스 담임목사 초청

군사랑선교회 (CLMM 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2월 28일 월드미션대 6층 강당에서 인도의 아룬다스(Rev. Aroon K. Dass) 바탈라교회(Punjab, India) 담임목사를 초청해 설교 및 인도 선교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지금 인도는 선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힌두교인들, 시크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인도의 기독교가 핍박 중에서 잘 성장해 인도 ECI 교단의 경우 4000여 교회로 성장했으며 작은 경제적 지원이라도 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아룬다스 목사는 금번에 남가주 혁신대원(SRTC LA campus)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에 김희창 박사의 전폭적인 선교 장학금 지원으로 입학해 공부하고, 이곳의 상수리교회(담임 이충애 목사) 주일 선교 설교,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의 중보기도팀과 연합기도팀, 그리고 신학교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며 선교적인 교류를 가졌다.

그는 24년 전 한국에서 김희창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길갈교회에서 2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날 찬양제에 참여한 교회명단이다.

밴나이스교회(담임 황승일 목사, 지휘 서근희),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지휘 김선애), 한사랑교회(담임 한진호 목사, 지휘 최지니), 금란교회(담임 정성용 목사, 지휘 어은희), LA교회(담임 김세환 목사, 지휘 서지혜), 옥스나드교회(담임 박민규 목사, 지휘 정미영), 벨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지휘 김주연), 사랑나무교회(담임 이상호 목사, 지휘 유은성), LA복음교회(담임 이영성 목사, 지휘 우진숙),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지휘 글로리아 안), 언약교회(담임 오경환 목사, 지휘 서경화), 남가주주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지휘 이선경), 로즈웰리교회(담임 신병욱 목사, 지휘 김은숙), 라팔마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지휘 박성숙), 시온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지휘 자스민 박), 은혜의강교회(담임 홍종걸 목사, 지휘 박은하).

# 서부교회게 게시판

## West

### 새생명비전교회 말씀콘서트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가 11일부터 15일까지 지혜는 목사(성락성결교회), 유관재 목사(화정동 성공교회), 이찬규 목사(한마음교회),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를 초청해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 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323)373-0110

### 나성서부교회 과외프로그램 실시

나성서부교회(1218 S. Fairfax Ave)가 지역사회를 위한 과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0주간. 등록비 20달러.

▲문의: (213)703-9189

### 충현선교회 '충현동산'

충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영성프로그램인 '충현동산 제 30기'를 '피플 매치'란 주제에 15일부터 18일까지 Kam Lim 선교센터에서 실시한다. 충현교회는 이 행사를 지난 13년간 지속적으로 열여왔으며 1200여명이 참석한다.

▲문의: (818)549-9191

### 나성순복음교회 축복성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축복성회가 이영훈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강사로 25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다. 한편 같은 날 목회자세미나(오전 8시30분)와 복미총회 목사안수식(오전 11시)도 갖는다.

▲ 문의: (323)913-4499

## '당하는 죽음' 을 '맞이하는 죽음' 으로

### 소망소사이어티 제133차 소망교육세미나

미주 한인사회에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계몽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제133차 소망 교육 세미나가 6일 오렌지에 위치한 커뮤니티 가든 타워에서 열렸다.

한인들에게는 '수정아파트'라고 알려진 노인 아파트 커뮤니티 가든 타워의 요청으로 열린 세미나는 대부분의 거주자인 한인 연장자들과 일부 미국인 연장자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 평화롭고 존엄성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계몽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인들이 그저 사후처리에 대한 결정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매장이나 화장, 신장기증과 같은 사후처리 뿐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그뿐만이 아니다.

최경철 사무총장은 음금상황에 대한 상황극을 연출하며 사전의료 지시서인 소망유언서를 쓰는 것은 물론 의식이 분명한 때 자녀들과 충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과 긴급연락처 카드를 준비함으로 음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80여명의 한인 참석자들과 함께 한 133차 세미나는 한국어 세미나를 마친 후 커뮤니티 가든 타워에 거주하는 일부 미국인들 대상으로 영어 세미나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역을 알렸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 "에피포도는 목적있는 사역의 예술"

### 제18회 예술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제18회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가 6일 오후 6시30분 만리장성에서 열렸다. 에피포도 예술인협회(회장 백승철 목사)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은 1부 예배, 2부 시상식, 3부 출판기념 및 시낭송으로 진행됐다.

이인미 시인(제16회 에피포도 문학상 수상자, 시전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실버울동팀(조은혜, 김사라, 이경애)의 몸찬양, 나삼진 시인(OC 살롬교회 담임목사, 행복함목회연구소 소장)이 기도했으며 정인석 목사(재미고신서부노회장, 하늘꿈교회 담임)가 주 하나님께 나를(사50: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2부 시상식은 백승철 목사가 환영인사를 했으며, 수상자들을 호명하고 시상했다.

(박준호 기자)

백승철 목사는 "에피포도 예술상은 1995년 시작했다. 에피포도는 목적 있는 사역의 예술이다. 글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에피포도의 예술은 사역의 예술이다.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웅 시인(재미시인협회 회장, 미주시인 발행인)이 축사를, 장효정 시인(미주문인협회 회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성악가 여선주 씨가 축가를 불렀다.

3부 순서는 권혁선 시인과 석경희 시인, 그리고 박의현 시인의 시낭송 시간을 가졌으며, 시인 조성목사(군타임스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찬양예배: 오전 5:30 주일 학교: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예배: 오후 7:00 새 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평일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왕소-KDC, 킹덤대학부):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kpc.org</p>	<p><b>등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9: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com</p>	<p><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7:30(토) Tel: (213)559-7728 (전환) 백승철,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제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한-미)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jclca.com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한-미)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b>배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성일예배: 오전 11:00 대학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ethel.org</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주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남가주성령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태권도: 오전 6:3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gracem.com Tel: (714)446-6207,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9</p>	<p><b>토렌스조던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선교의 창 (27)

##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 “한국선교 30년 역사에 전환점을 돌아서다” KWMF 제7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김종국, 사무총장 안성원)가 주최하는 제7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

선교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5년 이상 된 선임선교사 252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본 대회는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이라는 주제와 “한국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본 대회에서는 그동안 한국선교의 성장과 함께 한국선교도 세계 제 2위의 과송국가가 됐으나 한국교회에 급성장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것과 같이 한국선교도 급성장과 함께 문제점도 많은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러한 병폐와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내부적인 문제들과 한국선교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통감하고 동시에 한국선교의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새벽집회와 저녁집회, 주제 발제, 분과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역별 문제점과 대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KWMA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를 비롯한 교단선교 총무 및 선교단체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미국의 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및 미주한국기독교 총회 회장인 한기홍 목사, 미주총회 부회장인 차세대 지도자들도 참석해 아름다운 선교연대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 주 강사들로는 김종국, 임종표, 박기호, 이재환, 한정국, 고석희, 김연수, 정민용, 정현기(세계로병원) 원장 등이 단에 올랐으며 각 전문분야별 발제자 38명이 함께 섬겼다. 특히 아침예배에는 유정길, 정민용, 송종석 선교사, 저녁영성집회에는 이영훈(한기총, 여의도교회), 한기홍(미기총, 은혜한인교회), 김승욱(할렐루야교회) 목사, 그리고 폐회예배에는 박은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앞으로의 KWMF 로드맵과 실행으로 옮길 대 회선언문 작성과 발표도 있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 《8면에서 계속》

가는 길에 저를 반대하던 여러 모양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난 노도같이 과도되어 큰 바위 모세에게 밀려왔습니다. 부딪쳐서는 하나 같이 다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밀려 밀려오는 거센 파도에 어느 곳을 만져도 반들반들하게 큰 바위 모세의 모가 다 깎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기생천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약한 인간성의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누이 미리암에게조차 공격을 받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다보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눈물로 못난 불평쟁이들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는 그는 어느 누구라도 용납할 만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도록 하나님의 심장을 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성은 주님을 담은 성품의 맑기에 비례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광채가 나기까지 영성이 맑아진 모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온 존재에서 광채같이 쏟아 나옵니다. 긴 광야야구를 통과한 멋진 졸업장이랄까요. 고난이 즐거움 것은 아니나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순복하니 태산도 평지가 되고 폭풍 우도 잠재우고 모두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목회 정복기는 모진 환경에서 성령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시원스런 승전고입니다. 비단 모세만이 아니고 실로 어느 누구라도 모세의 길을 따라 전심으로 순복하면 지면의 승한 하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 내 안에 열매 맺히는 성령님과 인간의 합작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면 모든 하나님 자녀를 향하신 부르심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의 삶을 빚어 갑니다. 또한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헌신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애굽의 군대의 습막히는 추격, 나 죽어요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 아랑곳없이 담대히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느 모세! 사명자 모세는 해내었습니다. 너도 나도 살리는 당당한 사명자 모세의 모습 속에서 꼭 행복을 봅니다. 당당한 출애굽 역사가 당신과 나에게 크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한인세계선교사회(KWMF)가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가 올해로 제7차를 맞았다. 금번대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부제는 ‘한국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이며, 주제 성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19)였다.

한국선교 이대로 가도 좋은가? 때가 위중한 만큼 한국선교를 진두지휘하는 KWMA와 KWMC 관계자, 주요 교단 선교부 책임자와 각 과송단체 기관장 그리고 KWMF 임원과 세계 34개국 선교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임 선교사 등 총 252명이 모였다. 그야말로 교회와 과송기관, 선교사를 대표하는 선교

문제점과 대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분과 별 발제도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교육 선교 ▲회교권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전문인 선교 ▲현지선교개척 ▲창의적 접근지역 ▲여성 선교 ▲차세대 선교 동원 ▲선교 연구와 개발 ▲미디어 선교 등이다.

2. 밤 집회 및 특강  
첫째 날 개회는 KWMF회장 김종국 선교사의 설교로 시작되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본 대회를 위해 임원단이 금식하며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참 제자의 길”(막8:34)이란 제목으로 도전했다. 둘째 날 밤

3. 주된 발제  
발제1의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는 건강한 선교가 관건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연수 선교사(SM)는 선교사를 전진배치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별 친교위주의 선교사회가 약간의 권한을 가진 협의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3을 맡은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는 선교가 효율적이려면 교회-과송기관-선교사 혼연일체가 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에 이제는 융합선교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국 KWMA사무총장은 Target 2030 운동을 강조했다. 이때가 되면 한국 선교사가 미국을 앞질러 1위가 되면 기독교는

됨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와 세대의 선교 환경을 직시하여 선교자원(차세대, MK 등)을 동력화 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사들의 선교 본질 회복과 선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연장 교육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지상 과업 완수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며,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지도력을 이양해간다.

맺는 말  
금번 대회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바로 옆에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었음에도 산책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오

### 한국선교는 한국교회의 연장선 상에 있다.

#### 내 외적으로 위중한 때에 모두가 아픈 마음으로 통찰하며 변혁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한국선교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모인 것이다. 그간 우리는 자랑해왔다. 피선교지국에서 세계 제 2위의 과송국가가 되었다고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확실히 한국선교는 역사에 비해 급성장을 하였으며 질이나 양 어느 면에서나 우수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큰 나무는 그늘도 큰 것처럼 한국선교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저기 나라에서 한국 선교가 배척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냉정히 우리 선교의 병폐와 문제점들을 아픈 통찰하며 새로운 대안(Road Map)을 마련해야 했다. 금번 대회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 1. 대회 진행

본 대회는 새벽에 경건의 시간, 저녁에는 선교 부흥회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주제 발제 통하여 한국선교의 당면과제와 혁신에 대하여 마음을 모았다. 오후에는 분과별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사역별

에는 한기홍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은혜한인교회)가 “꿈을 꾸게 하는 선교사역이 되자”(창37:5-11)고 했다. 우리 선교는 당대로 끝나면 성공이 아니기에 사람 중심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날 밤에는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마1-17)이란 제목으로 선교는 사람의 이고 문제는 나부터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폐회예배 시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마16:13-20)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와 선교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이(후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밖에 특강으로서 세계로 병원 정현기 원장은 “본 병원은 설립취지대로 선교사에게 100% 무료 진료를 해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해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특강2에는 고석희 KWMC 사무총장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 6:11)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는 기능적 호칭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론적 호칭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선교와 목회는 결국 사람이면 먼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서구종교라는 틀에서 해방시켜 세계종교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발제5로 미주 1.5세인 정민용 목사(캐버넌트펠로우교회)는 그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변화하는 세대가 있기에 교회도 변화해 차세대를 품고 그들이 일꾼으로 나서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발제6 임종표 선교사(케냐)는 반성(Review) 변혁(Reformat) 그리고 대안(Redesign)이라는 3R틀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컨설팅 팀Global Consulting Team생겨 한국선교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2015년 제 7차 KWMF 지도력개발회의의 선언문.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의 원리와 선교사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적 선교 정신을 새롭게 인식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한국 선교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성장주의, 성과 주의, 가시적 선교를 해 왔음을 반성하고 분열과 불일치를 회개하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한 선교가 나 자신의 변혁으로부터 시작

대양 육대륙에서 고군분투하다 어렵게 이룬 모임이기에 존중이 아까웠다. 특히 셋째날 밤에는 OM소속이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근희 선교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갔다. 우리는 이 선교사와 여타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대회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언문에 담았다.

이제 행동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 되어야 하며 사역 중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파와 단체를 초월하여 연합하며 현직인에게 과감히 리더십을 이양해야 한다. 또한 한인 차세대 일꾼들을 키워 사역의 유구성이 있게 해야 한다. 이로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처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고백했으면 좋겠다. 덕수는 격동하는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힘겨운 세월을 살아온 우리부 모세대대를대변하고 있다. 우리 선교사 모두가 주님의 유언을 가슴에 안고 또 다른 덕수가 되어 아버지 앞에 갈 때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든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입)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미주크리스천신문

##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 선교 펴기

##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春三月이 시작됩니다. 아직 실감나진 않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되겠지요. 지난겨울 미국과 한국에서 혹독한 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에 3월 봄소식에 기쁨이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건기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온두라스는 11월부터 5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세계적인 이상기온이 여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건기동안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비가 와서 산골마을에 건축자재들을 운반할 수 없어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Rio Colorado교회(김태흥 조성순 전도사님 가정)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경에 마치고 바로 테구시 갈파 Villeda Morales교회(뉴저지 동산교회/윤명호 목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후 Santa Babara 지역의 Nisperales교회(캐나다 밴쿠버 한사랑교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세군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전념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은 잠으로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3일에

시작한 구약 성경 목상의 대장정이 말라지 4장을 목상함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년 6개월 매일 두 차례(6시30분 성도들과 한차례, 그 후 10시에 목회자 및 스텝들) 성경 한장씩을 목상하면서 먼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였지요.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을 두 번(1차 2011년 12월 15일, 2차 2012년 8월 2일) 마친 후 구약을 시작했었습니다. 조촐한 자축 통담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1월 감다윗 선교사님의 사역지(Tres Cruces)를 방문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인도했습니다. 강선교사님은 UBF선교회 선교사로 현재는 산페드로술라 국립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강의하면서 오지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산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잘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교회에서 잠시 눈을 불린 후 Nisperales교회 건축을 위하여 꼬불꼬불 산골길을 몇 시간 운전하여 San Luis에 도착하여 인신 넉넉한 시골 건축자재상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교회 건축 등으로 장거리 여행이 잦은 편입니다. 테구시 갈파교회 건축을 위한 방문(17일-19일), 산페드로술라를 비롯하여 수시로 Rio Colorado, Yamaranguila 등지를 운전하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네요. 지난 주간에는 산페드로술라에서 온두라스 유사이래 불붙추차로 산

페드로술라 경찰이 차를 견인해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 앞에 주차를 했는데 위반이라고 하네요. 거금의 MULTA(벌금)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벌금을 위한 토잉이기에 마음이 씩씩했습니다. 차 명의를 바꾸는데 관세청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새 정부 출범이후 온통 세금을 착취(?)하기 위한 나라가 된 듯합니다. 엄청 많은 세금을 대신 내어주시는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막내 혜진(Joyce)이가 여러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University of Virginia에 조기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4월 초에 확정되는 대학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Everyday교회 유만수 집사님께서 한 달여 이곳을 섬기기 위하여 25일에 오셨습니다. 말동무뿐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3월에는 여러 사역으로 분주할 것 같습니다(7일 세례준비 공부, 14일 세례식/40명 예상), 21일 각 교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30일 유스그룹 아이들 소풍).

지난 2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드림 segyunjang@gmail.com

## 스와지랜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31:8).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난달에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사 2015년도 첫 소식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한국은 새봄이, 스와지랜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지만 주께서 인도해주시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는데 여러 여건이 쉽지 않아 1달 이상 걸린 웰스센터(클리닉)가 드디어 실제 진료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보사부에서도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사부 실사도 자꾸만 늦추어졌으나 오늘 드디어 보사부 부국장님이 방문하여 살펴보고 만족한 반응을 보였고 정식으로 허가하는 문서를 2월 후에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준비인 이코보협회와의 계약, 약품도매상과의 계약, 은행계좌 만들고, 카드사 용기계 준비, 그리고 공식적인 홍보(?)를 하는 등 바빠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들어서서 준비하신 남상윤(산부인과), 송창호(내과), 홍기배(소아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최근에 합류하신 유덕종(내과), 최인근(내과), 임

경아(소아과), 김정현(진단검사의학과)선생님들께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주셔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함께하시고 물질로도 함께하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필요한 기자재를 가까이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든 설비와 장치, 네트워크 등, 온갖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정효기 간사님과 김한기 국장님의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외과 선생님의 동역이 필요한데 주께서 이 또한 주님의 시간에 보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과대학의 개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나 기자재를 제외한 준비는 다 되어 있으나 이들 infrastructure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ACM의 사정 때문에 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1달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금년 8월 개교가 힘들 수 있으므로 주께서 특별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의견으로 한국에서 들어간 임대 준비 팀이 ACM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어렵고 의대의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번 8월에 개교를 위해서는 각종 실습기자재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준비되는대로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혹시 기자재를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진료팀은 2월 9일밤 자정에 출발해서 21일에 인천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목하여 3군데의 정 부병원에서 각종 수술과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간다와는 또 다른 환경에서 애쓰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보고 듣고 한 모든 부분들이 이분들의 삶에 귀한 부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마음에 담아간 각종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선우제근, 강낙현, 내용길, 인강진, 엄의용, 김명진, 한정우, 이충열, 남상욱, 박명숙, 석신애, 김성애, 인영은, 최정원, 이상목, 선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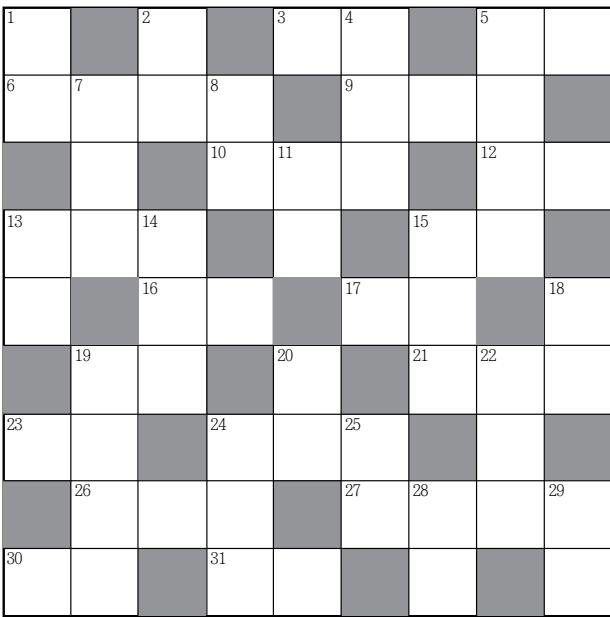
새해들어서 10분(민선영, 박도준, 남상욱, 백성욱, 최현림, 정안나, 임해린, 공성호, 이경주, 성지혜)이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참여해 주시거나 다시 참여해 주셨고, 6분(이기만, 김예정, 김철준, 김봉희, 김명은, 서울의대기독교문화회)이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내 평강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아프로젝트 드림 김성영 교수(sykim@cnu.ac.kr)

## 십자말 • Cross Word (72)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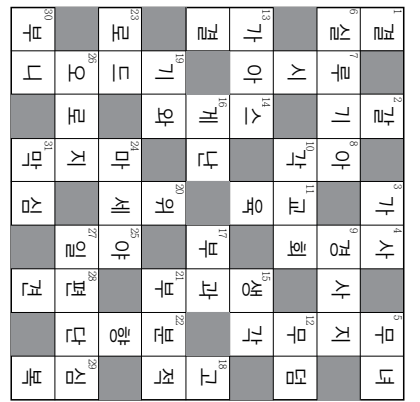
### <가로 푸는 열쇠>

- 노래의 내용이 되는 글(대하35:25).
- 길흉을 점치고 갖는 여자(사57:3).
-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시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행13:4).
- 비스듬히 기울어진 땅(사10:40).
- 교회마다(행14:23).
- 시체를 묻어두는 곳(민19:16).
- 에브라임산맥 중의 한 산. 여호수아의 묘가 있다(수24:30).
- 사고(思考), 사상(장6:5).
- 에노스의 아들이요 마랄랄렐의 부친(창5:9).
- 매겨서 부담시키는 일(왕하23:35).
- 흙, 시멘트 따위로 구워 만든 지붕을 이는 물건(욥2:8).
- 전체 가운데의 한 부분의 것(고전13:9).
-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군용도로 가까이 있는 곳. 랍비 학교가 있었다(사2:33).
- 스라야의 할아버지며 네리아의 아버지(렘32:12).
- 오직 한 곳으로 전려(대하19:3).
-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순국하기 전 읊은 시의 유명한 한 구절(국사).
-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복, 율법책을 낭독할 때 여호와께 경배하며 부르짖은 자(민26:23).
- 더할나위 없이 몹시(시119:107).

### <세로 푸는 열쇠>

- 열매를 맺음(신29:23).
- 사자나 말 따위 짐승의 목덜미에 난 털(욥39:19).
- 지금은 부흥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칭했다(기독교역사).
- 아는 것도, 깨달음도 없음(사82:5).
- 바울이 로마총독 벨리사 앞에서 심문받을 때 관여한 천부장(행24:22).
- 하만의 출신지(에3:1).
- 가르치어 지능을 가지게 하는 일(왕하10:1).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행15:22).
- 에베소에 있는 유대의 제사장으로서 정권도 잡았다(행19:14).
- 남편과 생이별한 여자(삼하20:3).
- 외롭고도 쓸쓸함(애1:13).
- 베냐민의 자손 아비단의 부친(민1:11).
- 위엄이 있는 기세(사66:15).
- 향을 피우는 제단(출30:27).
- 최후(삼하3:1).
- 므낫세의 아들인데 압박강 이복 아들의 영토를 정복하고 하보타일이라 했다(민32:41).
- 공정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견해(딤펴5:21).
- 썩 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람(문1:12).

### 십자말 정답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 - 오후 8:00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문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P사모사역원 원장)

## 11. 사모의 가정 가꾸기(2)

전세계적으로 오는 가정의 위기는 날로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우울증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혼율도 정상을 달리고 있는데 젊은 층보다는 황혼 이혼이 작년 2014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대부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안고 있는 것이 피해의식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이지요. 빌리그래함 부인에게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놀라게 하였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나?"고 질문하는 말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실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 선교지에서 사모 역할 더 중요... 돕는 베필로의 정체성 확인 현지 적응 빠른 여성의 장점 자칫 남편 선교사 무능케 보여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치관의 변화, 인식에 대한 오류, 과거에 여성비하에 대한 반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 안에 마귀 들어오는 성경적 창조원리를 무시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을 막을 길이 없어 고민하는 목회자님들이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권위내지 능력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여성들의 능력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발휘하게 되는 데서부터 이혼은 담대하게 실천되어져가는 실정입니다.

선교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부가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사명을 안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낯선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부터 가정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적응능력이거나 언어 능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증가하는 이유로 내성적이 되고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많아지면서 활발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기도를 해도 여성 쪽이 훨씬 응답도 빠르고 영력도 강하여 남편을 무시하기가 쉬워집니다. 별 특별한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위축이 되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권위는 물론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엉뚱한 곳에 불만을 터트리므로 아내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역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 보고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게 됩니다. 아내들의 잘못된 생각은 더욱 남편을 주눅들게 합니다. "선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이야 그러니까 좀 일을 잘해요"라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입니다.

선교지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빨리 탈진하게 하는 곳입니다. 현지 적응하느라 수년이 걸리고 언어 습득하느

라 수년이 걸리다 보면 어느새 수십년이 흐르지만 해놓은 일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부부의 감정도 쉽게 말라 버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어디에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사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꼴이 보기 싫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어 얼떨결에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고 낯선 곳이기도 하여 무서워서 다시 돌아오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교지는 부부의 로맨스를 찾기에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환경이 좋고 스트레스를 풀만한 장소가 흔한 지역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크리스천 부부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선교사부부들의 가정이 깨어지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선교지의 이혼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교사 부부축제나 사모세미나는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깨리는 작은 여우새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성은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남성은 전장에서 설명대로 남편의 위치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위치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혼자서는 서기 힘들습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잠언 31: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여기에서 현숙이란 여인을 보면 '햇세드 하이리'라는 의미로 '햇세드'는 여인이라 여말인 '하이리'는 성격에 200번 사용되었는데 강함을 들어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대, 능력, 부, 강함 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을 가진 여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더 어려운 역할을 맡았으므로 강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위의 성경구절은 남성들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들을 오히려 바로 이해서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여성들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10절에 대한 해답이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회복될 때 여성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창조질서 안에서 여성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돕는 베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돕는 베필이란 '에셀 케니'라는 원어로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어 글자에도 사람 인자를 보면 두 획 중에 한 획은 버티고 있기에 다른 한 획이 유지되어 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모세미나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새로 온 결단을 하게 합니다.

"자의 가정의 문제와 사역부진의 원인이 남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남편에게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구요, 당신의 약점은 돕는 베필인 제가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라고요"하며 고백하는 아내들을 맞이하는 남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하나님의 전신갑주(엡6:10-24)찬93장

천상에 있는 보편 교회가 잠시 동안 어두운 세상에서 해야 될 싸움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첫번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해 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무기로 무장하기만 하면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구원, 의, 평안, 믿음,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서로의

존적이기에 이것을 취해 입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묵상과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가 그 위에 서서 때를 얻고 마귀를 이깁니다. 셋째, 그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방어용이나 이것은 공격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나에게 주어진 제일의 명령입니다.

### 화 교회의 증성함(엡1:23)찬495장

삼층천에 올라 참제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교회의 실상을 본 사도는 만유의 총만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만물 안의 부모와 총만인 그리스도인 지식을 지혜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만유의 총만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갑추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그의 총만이니라"고

묘사했습니다. 둘째, 이것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진실한 수고를 통해서만 발견되어집니다. 그 풍요와 총만이 교회 안에 그대로 주어진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만유의 풍요를 진정으로 누리고 전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성령의 계시로 구원받은 교회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하나님과 그 기업의 부모와 무한한 강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성함입니다.

### 수 구원의 전과 후(엡2:11-22)찬408장

첫째, 구원받기 전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11). 그때는 이스라엘과 구분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약속과 상관없는 자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 실상이 바로 나의 과거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담이 무너져 이스라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됐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13).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

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의 변화를 주장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변화를 감사하며 그것을 주장함으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빛의 생활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자양분으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 목 빛으로 살려면(엡6:1-9)찬259장

빛으로 살려면(엡6:1-9)찬259장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은 너무 힘들합니다. 마귀와 육체의 소욕이 깊이 결탁한 교만한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고이고 생사를 가능하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 같은 육신이 계속 작용하는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먼저 마음

에서 시작하여 부부와 부자 관계 그리고 직장생활로 나아갑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빛이란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성경 교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여호와 경외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빛의 생활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자양분으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 금 바울이 본 교회(엡5:1-4)찬431장

바울은 교회의 정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삼층천에 올라 목격한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교회는 하나님 성품으로 총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문제 많은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고 합니다.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단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며 회롱의 말, 누추한 말, 음행의 말을 벗어나 감사하는 말로 그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감사하지 않은 일과 상황이란 교회에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감사의 말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일에 대입시키면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행함입니다. 감사의 샘이 솟구칠 때 문이 열리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풍성한 이 임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사의 고백은 사해를 갈릴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를 이룹시다.

### 토 그리스도인의 말(엡5:4)찬213장

그리스도 밖에서 어두웠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 안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 빛은 먼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는 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회롱하는 헛된 말이 착한 말, 옳은 말 그리고 진실한 말로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어두움 속에 있는 실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빛의 사람은 감사의 말로 나

타야 합니다. 이 감사가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평할 자리라도 감사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가진 이사야의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공통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입술의 부정을 발견하고 그 절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령 아래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만듭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p>	<p><b>군포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b>금관교회</b></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p> <p>담임목사: 장항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877-3389-9, Fax. (031)877-8382 (주)110-831 110-831 110-831 110-831 110-8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병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에덴교회</b></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헌신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후 5:00</p> <p>Tel. (0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16-808)</p>	<p><b>성실교회</b></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p>	<p><b>성일교회</b></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b>수정교회</b></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동교회</b></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마동 137번지</p>	<p><b>시온소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b>신길교회</b></p> <p>담임목사: 이신웅</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갈매동)</p>	<p><b>신촌교회</b></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후 5:00</p> <p>Tel. (82)2-786-6579, 새벽(02)32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b>안암 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제기동 146-7</p>
<p><b>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경남 창원시 양곡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p>	<p><b>양성교회</b></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b>주안교회</b></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 인/터/뷰 ITS 7대 총장 이승현 박사

## “미국내 한인교회 과제 담당에 큰 책임감”

“총장이라는 자리는 그 이름 자체로만으로도 막중한 자리입니다. 학교가 저에게 총장의 직임을 부여한 것은 단지 ITS라는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교회의 과제와 미국전체 교회들을 위한 과제를 담당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2일 ITS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의 7대 총장으로 취임한 제임스 리(한국명 이승현) 박사. 그는 총장취임 소감으로 내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에 대한 ITS 과제를 언급했다. 그 과제는 바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신학교와 교세의 하락세에 접어들어 교회들에 대해 ITS가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는 것이라 언급했다.

“현재 세계 기독교인구의 60%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ITS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ITS 7대 총장 이승현 박사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ITS학생들의 사역현장에 적용돼 그들의 교회가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교회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문화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역시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과 저희의 신학의 깊이가 연결될 때 시너지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탄자니아 하나님의교회 비숍으로 계신 목사님 경우 ITS가 주는 신학적도태가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마다 교단에서 유망한 목회자들을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리 총장은 세계도처에서 찾아온 학생들 중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는 타종교에서 개종한 학생으로 무슬림이었던 학생이라고 말했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 나이지리아 무슬림이었던 자가 있었어요. 그는 무슬림이자 자신이 속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개종한 이유는 무슬림이 주지 못한 영적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 학생 · 교수 모두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져 무슬림 경력 학생들로 이슬람 선교에 기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그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장으로 1년간 업무를 봐온 이 박사는 ITS의 특징으로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스텝들의 다양화를 손꼽았다.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는 다양화는 ATS에서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저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70여명입니다. 학생들은 16개국에서 왔구요. 교수들도 아시아를 비롯,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등 다양한 지역출신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화는 커리큘럼을 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업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가 말하는 다양화에 따른 장점은 바로 글로벌한 안목을 갖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각자 나라의 문화와 세계관이 수업시간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타 문화권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 역시 다양한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미국분이라도 선교사출신이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요. 이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ITS의 신학은 개혁주의의 노선을 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개혁주의가 아닌 오순절 신앙을 배경으로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저희 학교는 고 김의환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역시 개혁주의의 노선을 견고하고요. 그러나 저희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온 학생들은 상당수가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ITS를 찾은 것은 신학적인 깊이를 갈구하고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

저희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나이지리아로 돌아가 현재 어떤 교단의 선교부를 담당하며 무슬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ITS 재학생 중 이슬람권 출신들은 졸업 후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장은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반군 보고하람의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갈등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한 삶이 풍성하고 값진 삶인 것이라 믿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승현 총장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학사(BA),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스터대학을 거쳐 리치몬드 유니온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Ph.D.)를 취득했다. 가족관계로는 부인 진혜준 기독교교육학 박사과 사이에 13살, 11살 딸 둘과 1살 된 아들이 있다.

(박준호 기자)

### 참회록 “거꾸로 가는 사다리” 펴낸 신원규 목사(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

## 성공에서 무너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무너짐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훈련이고 축복이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두란노 출판사)를 소개하는 신원규 목사는 “이 한권의 책속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사연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했다”고 말한다.

신원규 목사는 1990년대 LA 지역에서 성공적인 목회로 교계의 주목을 받던 목사였다. 성도 1,500여명을 육박하며 승승장구하던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는 과도한 욕심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채가 쌓이게 됐고 결국 건물은 은행으로 넘어가는 아픔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 둘 떠나가 버렸고 지금은 200여명 안팎의 성도들이 신 목사와 삶을 같이하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다.

신원규 목사가 이번에 출간한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는 그간의 모든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긴 참회록이다.

“사실 책이 나오게 되니 맘에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와 그간의 심경을 전하는 신원규 목사와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무너짐은 제게 회복이고 축복입니다”라고 강조한다.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란 제목의 의미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로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을 표한 것이라 한다.

이 책은 총 여섯 파트로 나뉘어 1. 부르심-그는 아무도 못 말리는 성직자입니다. 2. 세우심-의로운 이민자를 내가 품었습니다. 3. 높이심-우리교회는 하나

분문으로 들어가면 신 목사의 아픈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목사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다는 심정으로 팜프프리를 찾아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 가파른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냐? 내가 피 값으로 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내 마음대로 나의 것을 버려야 하나? 아직 너는 살아 있어야 할 이

### “몸집 작아야 두 날개로 잘 날수 있어” 빈곤아 고아 돌보고 사역자 훈련 주력

부담도 됩니다. 책에 기록한 대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가족들조차도 그간 저의 마음과 겪은 일들을 다 알지 못했지요. 이번에 비로소 책을 보면서 아빠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저 하나도 숨김없이 다 풀어 놓았습니다. 후배 목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조금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신 목사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또한 그는 “이전엔 교회 부흥을 꿈꾸며 외적 성공을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작지만 행복한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에 성도들과 상의하여 좋은마을교회(The Good Village Church)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 브레아 쪽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시작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집이 작아야 두 날개로 훨씬 잘

님의 은혜의 동산입니다. 4. 무너짐-나는 교회의 염려와 수치가 되었습니다. 5. 일하심-무너짐은 회복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6. 낮아짐-낮아지니 비로소 자유 합니다. 등으로 크게 나뉘어 40여개의 글을 수록했다.

신 목사는 프롤로그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던 나를 처서 ‘종을 사랑하십시오’ 처럼하고 끈질기게 ‘낮고 작은 교회’로 만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록했다”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종이였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무너짐이 다른 귀한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지혜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와 목적이 있다. 이제 내가 네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들려오는 세미하고 강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죽은 광풍에 휩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신을 세우셨다고 고백한다.

이후로 치유가 시작됐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그는 다시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작지만 행복한 목회를 하며 My Kids World와 Preaching Ministry를 통해 저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어린이와 고아 등을 돌보고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껏 돕고 있다.

책구입에 관한 문의는 (562)690-9800. 책 판매 수익금은 My Kids World와 Preaching Ministry사역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성자 기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FULL GOSPEL WORLD MISSION INC.

# 이영훈 목사 초청

# L.A. 축복성회

**일시:** 2015년 3월 25일(수) 19:30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당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단장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장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일정안내**  
목회자 세미나 8:30am (최성규 목사 / 이태근 목사)  
북미총회 목사 안수식 11:00am (설교: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7:30pm